

# 원기 104년 원불교 사회여론조사 보고서

작성: 원불교 정책연구소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요 여론조사자료 분석결과
  - 2.1. 원불교에 대한 사회여론 추이
  - 2.2. 여론조사지표 상호관계
  - 2.3. 불교호감도의 상승
3. 교화정책을 위한 함의점
  - 3.1. 호감도의 중요성
  - 3.2. 매체를 활용한 교화
  - 3.3. 원불교 정체성의 교학적 정립과 홍보 및 교육
  - 3.4. 불교호감도 상승의 사회적 흐름 활용
4.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원불교 정책연구소는 지난 원기 95년 이후 올해까지 6 차례 걸쳐 사회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교단 대중과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교화정책에 대한 함의점 위주의 보고서를 출가교화단보에싣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체 보고서는 추후 원티스 정책연구소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논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일반사회교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셋째, 원불교에 대한 정체성을 교학적으로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홍보·교육해야 한다. 넷째,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사회적 흐름을 교화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 아래에는 각각의 결론과 관련된 분석결과와 논의를 서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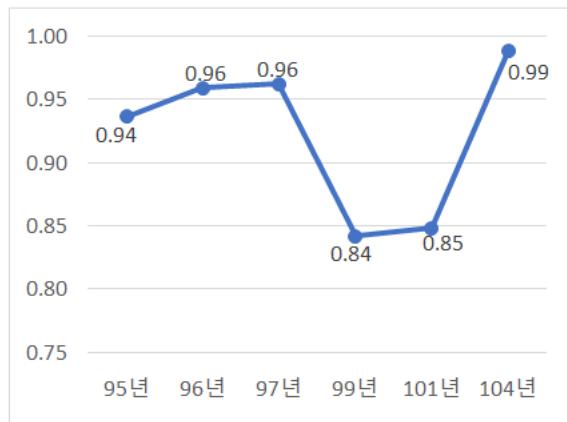
## 2. 주요 여론조사자료 분석결과

### 2.1. 원불교에 대한 사회여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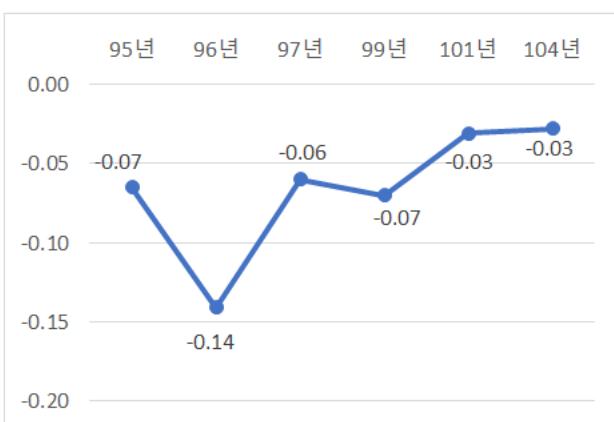
이번 원기 104년 사회여론조사에서도 원불교에 대한 사회여론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예년과 동일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국 7개 광역단체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였다. 그림 1,2,3 은 각각 95 년 이후 원불교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조사항목이 모두 아직은 낮은 수준이긴 하나 원기 101 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인지도와 관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호감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sup>1</sup>.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3 년간 교단의 사회교화노력이 효과를 보아 온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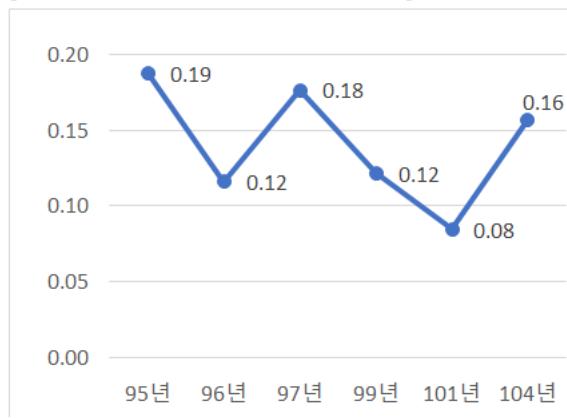
[그림 1. 원불교 인지도 변화추이]



[그림 2. 원불교 호감도 변화추이]



[그림 3. 원불교 관심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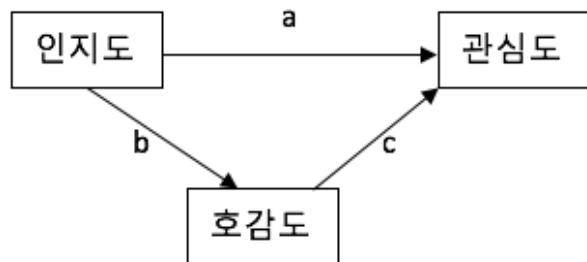
## 2.2.여론조사지표 상호관계

관심도를 중심으로 인지도와 호감도, 관심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림 4]와 같은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원불교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며 (경로 b), 호감을 가질 때 알아보고 싶어 할 것(경로 c)이라는 사회여론에 대한 이론<sup>2</sup>을 설정해 보았을 때

<sup>1</sup> 인지도  $t(1998)=4.12$ ,  $p<.001$ , 관심도  $t(1998)=5.66$ ,  $p<.001$ , 호감도  $t(1998)=.10$ ,  $p=.92$

<sup>2</sup> 이러한 이론적 틀은 다른 여론조사 연구에서도 설정된 바 있다. 성주한(2018). 경로모형을 이용한 기업형 임대주택 특성이 인지도와 호감도 및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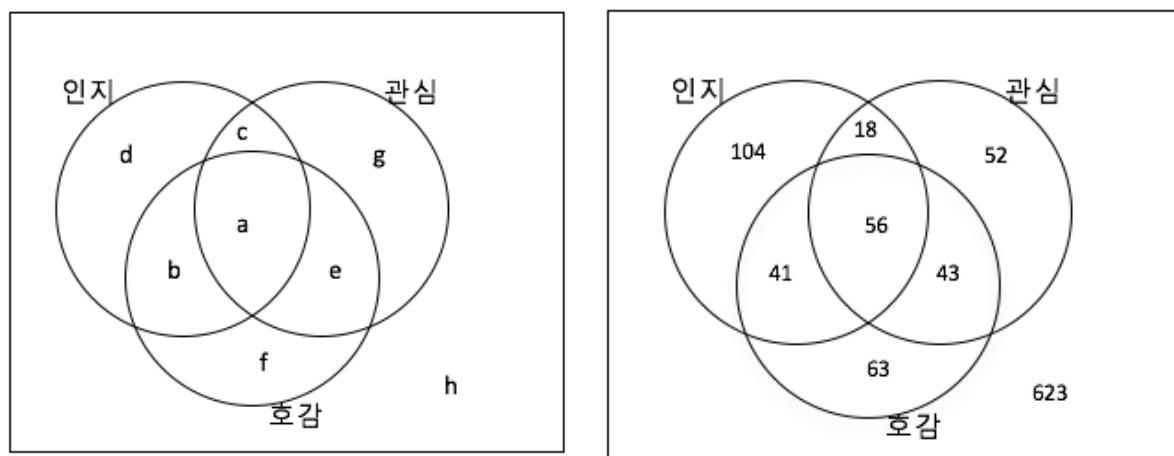
[그림 4.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관계]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통계분석<sup>3</sup>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그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원불교에 대한 호감과는 별도로 단순히 원불교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원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관계(경로 a)도 유의미하게 성립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또한 관심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요인인 인지도와 호감도 중 호감도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를 0과 1 두 수치로 재코딩<sup>4</sup>한 후 세 변수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다. 그림 5-A는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그림 5-B는 각각의 구분된 영역에 해당하는 설문응답자수를 기입하였다.

[그림 5.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 벤다이어그램 (N=1000)]



이를 통해 관심도가 인지도와 호감도에 의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면 관심도는 인지도에 의해 44%<sup>5</sup>가 설명되는 반면, 호감도가 설명해 주는 비율은 59%<sup>6</sup>로 설명의 크기에 있어서 호감도가 관심도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또한 관심도 영역 중 인지도에 의해 설명되는

<sup>3</sup>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의 결과치가 0과 1 두 가지일 때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두 가지 결과치가 각각 나올 확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기법.

<sup>4</sup> 인지도 0=모른다, 1=안다; 호감도 0=비호감, 1=호감; 관심도 0=무관심, 1=관심

<sup>5</sup>  $(a+c)/(a+c+e+g) = (18+56)/(18+56+43+52) = 0.44$

<sup>6</sup>  $(a+e)/(a+e+g+c) = (56+43)/(56+43+52+18) = 0.59$

부분도 다시 76%<sup>7</sup>가 호감도에 의해 설명됨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원불교의 사회교화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원불교사회교화 경로를 도표화<sup>8</sup>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원불교 사회교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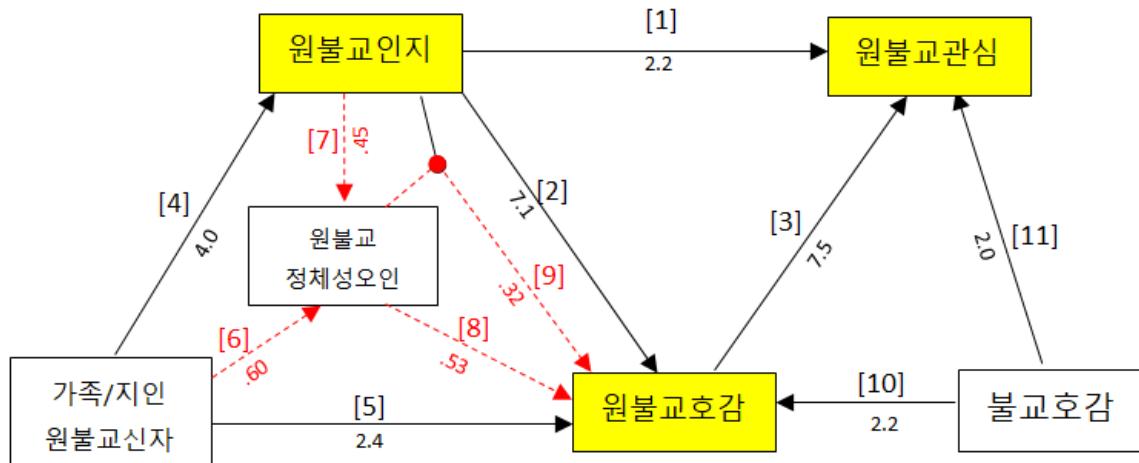


그림 6 의 각각의 경로<sup>9</sup>와 통계분석 결과<sup>10</sup>를 설문지 내용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상호관계

경로 1: 원불교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2.2 배로 높다.

경로 2: 원불교에 대해 적어도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7.1 배로 높다.

경로 3: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7.5 배로 높이다.

<sup>7</sup>  $a/(a+c)=56/(56+18) = 0.76$

<sup>8</sup> 그림 6 은 4 개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통계결과를 조합하여 나타낸 경로모형임.

<sup>9</sup> 빨간 점선 화살표로 나타낸 경로(경로 6,7,8,9)는 부적(-)인 영향을 의미. 즉 독립변수가 높아질수록 종속변수는 낮아짐.

<sup>10</sup> 경로 아래 기재한 통계수치는 교차비 (Odds Ratio)

## 2) '가족/지인'의 영향

경로 4: 원불교신자인 가족/지인을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4.0 배로 높다.

경로 5: 원불교신자인 가족/지인을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2.4 배 높다.

경로 6: 원불교신자인 가족/지인을 통해 원불교를 알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길 가능성이 40% 낮다.

## 3) '원불교정체성 오인(誤認)'의 영향

경로 7: 원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길 가능성이 55% 낮다.

경로 8: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느낄 가능성이 47% 낮다.

경로 9: 원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되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은 원불교를 조금은 알되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68% 낮다.

## 4) '불교호감'의 영향

경로 10: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2 배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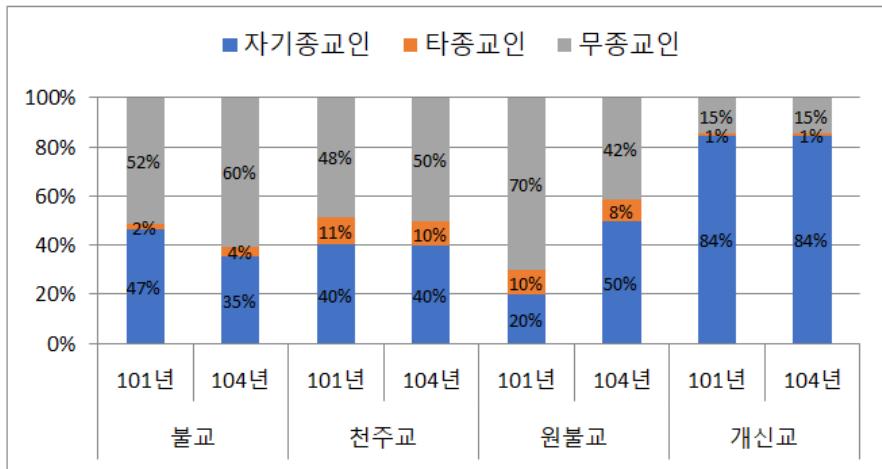
경로 11: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불교에 대해 알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0 배로 높다.

## 2.3. 불교 호감도의 상승

소속종교와 상관없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불교를 호감종교<sup>11</sup>로 꼽은 응답율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원기 101 년 32%에 비해 5%가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불교를 호감종교로 꼽은 응답자 중 60%가 무종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림 7]은 호감종교로 꼽힌 종교별로 자기종교인, 타종교인, 무종교인의 상대적 비율을 원기 101 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불교를 호감종교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다른 종교와 비교에서도 높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52% → 60%). 무종교인 중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원기 101 년 33%에서 38%로 5%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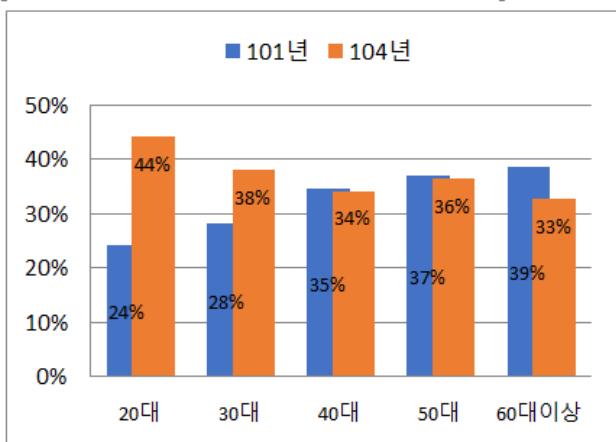
<sup>11</sup> 천주교 29%, 개신교 24%, 원불교 1.2%

[그림 7. 호감종교별 자/타 소속종교인 비율]



또 하나 불교에 대한 호감 현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젊은 층 중에서 불교에 호감을 갖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이다. [그림 8]은 연령대별로 불교를 호감종교라고 응답한 비율을 원기 101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연령대별 불교호감 비율 비교]



20 대에서는 불교를 호감종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24%에서 44%로 20% 상승하였고, 30 대에서는 28%에서 38%로 10% 상승하였다. 이는 탈종교화시대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보여지며 이 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 3. 교회정책을 위한 함의점

#### 3.1. 호감도의 중요성

그림 6에서 인지도, 호감도, 관심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경로 1,2,3 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 호감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단기적으로 교화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대중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과 교화방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예로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세련된 홍보와

더불어 간접교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사회복지기관<sup>12</sup> 등 대사회적 서비스 기관을 충실히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교화구조로 보았을 때 호감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는 향상된 반면, 호감도는 현상 유지밖에 하지 못했음[그림 2 참고]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 3.2. 매체를 활용한 교화

원불교의 사회교화 경로[그림 6]를 살펴 보면 가족/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외 매체 등을 활용한 방식에 비해 월등히 높음(경로 4: 인지도 4 배, 경로 5: 호감도 2.4 배)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5]를 보면 여전히 원불교에 대한 인지, 호감, 관심의 영역 밖에 있는 일반대중(A 의 h 영역)이 60%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원불교의 교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사람에만 의존한 전통적 교화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면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현재 효과적인 가족/지인을 통한 교화를 유지해 나감과 아울러, 현재 효과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양질의 교화컨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그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인터넷과 같은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서 인지도, 호감도를 동시에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 3.3. 원불교 정체성의 교학적 정립과 홍보 및 교육

이번 여론조사 분석결과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다[그림 6 경로 6,7,8,9]. 여전히 많은 대중들이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라고 여기거나(53%) 정체가 모호한 종교로 여기고 있음(18%)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오인이 사회교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편, 원불교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정체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현상은[그림 6 경로 7] 원불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원불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원불교에 대해 알되 원불교정체성을 오인하는 경우 호감도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현상[그림 6 경로 9]은 원불교에 대해 대중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교학적 정립과 아울러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홍보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원불교를 알되 원불교의 정체성을 오인하는 경우 오히려 더 호감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인 홍보만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연구조사 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sup>12</sup> 지면 관계상 본 보고서에 자세한 분석결과를 실지 못했으나 유아교육/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호감도가 원기 101 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다[3.57(원기 101 년) → 3.10(원기 104 년), t(60)=-2.39, p=.02].

### **3.4. 불교호감도 상승의 사회적 흐름 활용**

불교도가 아닌 무종교인층에서 그리고 젊은층에서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더불어 불교에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원불교에도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그림 6 경로 10, 11]. 현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불교에 점점 호감을 갖게 되고 있는지 심도있게 조사하여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활용한다면 원불교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를 증가시켜 교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에 대한 호감이 상승하는 한가지 요인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점차 널리 알려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원불교의 개교정신은 명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계와 교화계의 관심있는 교무님들이 선프로그램 교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여겨진다. 명상 프로그램을 일반대중들이 호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교단인재들의 역량을 모으는 작업에 교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

## **4. 나가는 말**

본 보고서의 내용은 특별히 새로운 발견과 주장이 아닙니다. 교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보고서의 의의는 논지로 세우고 있는 바가 자료와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관성 있고 평가가 가능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반화가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계수치란 확률적이어서 표본의 수집과 통계분석과정에서 확률적 오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계획하고 그에 따라 시행된 교정정책들을 평가해 가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교단 4 대를 준비하는 교정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일조가 되기를 염원하며 보고서를 마칩니다.